



## 마인츠 임펄스

구텐베르크와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인쇄술의 발명을 경험했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 혁명과 더불어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제작과 복제, 배포와 같은 구텐베르크의 수공 인쇄기술 역시 디지털화되면서 출판 작업의 여러 단계들을 이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움직이는 활자를 이용해 책을 인쇄했던 전통 인쇄술이 제 2 차 미디어 혁명을 가능하게 한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전통 인쇄술의 보존

인쇄술 분야의 세계적 박물관이자 유럽 인쇄술의 요람인 마인츠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본 발의를 통해 이런 중요한 수공업 기술이 소실되어 가고 있음을 주목하며, 아비자의 조각에서부터 활자의 주조를 비롯 조판과 인쇄 과정까지의 역사적인 전통 기술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기술적 업적"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모든 시민들과, 관심 있는 언론들, 전문가들, 전문위원회 및 인쇄소들 그리고 인쇄술과 관련 있는 모든 기관을 향하여 호소하고자 합니다. 인쇄술이 지닌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중요성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기술문화가 잊히고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호하고 신속한 노력입니다

### 필요한 조치

- 구텐베르크의 기술을 위한 국제 노아의 방주의 설립. 얼마 남지 않은 전문 실무자들이 그들의 지식을 젊은 세대에 전승하여 실용적이고 무형적인 지식들이 생동감 있게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유럽의 교육 프로그램과 전통 인쇄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쇄소들 또는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전수를 목적으로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수반하는 블랙 아트 협회의 프로그램인 “롤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 움직이는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아비자 조각에서 인쇄까지의 구텐베르크 기술)을 독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
- 움직이는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아비자 조각에서 인쇄까지의 구텐베르크 기술)을 유네스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
-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인쇄 미디어 테크놀로지“ 학과에 „예술적 인쇄 방식“에 초점을 맞춘 정규교육과 추가교육의 역량을 양적으로 확대
- 학교 및 직업 학교의 기본 커리큘럼에 인쇄와 미디어 역사 내용을 고정적으로 편성
- 기존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정 강화, 예) ERIH (산업문화 유럽 루트)
- 아날로그적 인쇄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인쇄 체험관을 비롯 수공업 인쇄소들을 장려
-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강화하여 우수한 유물들과 실용적 체험학습을 통해 유럽 및 세계 역사에서 인쇄술이 지닌 문명적 의미를 전 세계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 마지막 지식 센터

수작업으로 조판하고 인쇄해 책을 생산하고 더불어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 인쇄소들은 이제 몇 곳에 불과합니다. 다름슈타트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주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방식의 인쇄에 필요한 수제 활자가 거래되는 시장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듯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전통 직업들이 이제는 몇몇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문가들이 은퇴하면서 수공업 사업장의 근거 있는 정보들도 우리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계들과 인쇄소 설비들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들이 지닌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활판 인쇄술의 중요성

활판 인쇄술은 이전의 다른 발명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20 세기에 들어서기까지 500 년 이상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과학,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미디어 혁명의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활판 인쇄술은 기술적 혁신 외에 문명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0 년에 미국에서 구텐베르크를 "밀레니엄 인물"로 선정했던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구텐베르크 박물관

인쇄술에 내재된 기술적 독창성과 미디어적 진보 그리고 문화적, 지적 원동력의 복합성은 1900 년에 설립된 마인츠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수행하는 연구와 수집, 전시 활동에 그 특징을 부여합니다.

다른 어떤 박물관보다도 전통적 장인 정신과 기술의 노하우, 정보와 지식의 전달 그리고 문화 및 예술 역사적 산물에 대해 국내외 영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으로 인한 변화와 책들, 책의 내용들, 구매자들, 제작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의 문화와 기술 역사에서 중요한 시대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 120 년 이상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기계들을 비롯 구텐베르크와 그의 발명에 관련된 유물들과 동아시아 인쇄술 관련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외의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장서표들과 미니어처 책들, 상업용 인쇄물 등 수많은 특별 소장품 역시 이에 속합니다.

이 유산들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박물관 산하의 기구인 특수 도서관(구텐베르크 도서관)에는 인쇄 역사 및 책의 제작 기술에 관한 도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열리는 미니 인쇄 박람회를 유치하며 소형 출판사와 인쇄소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쇄 체험장에서는 전통 인쇄술의 실용적 연구와 전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 미디어 시대에 살고는 있으나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누구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과거 인쇄술의 발명 시대와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 "마인츠 임펄스"에 대한 취지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지난 2018년 11월 15, 16일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우수 클러스터 "이미지 과학 디자인"과 공동으로 "인쇄술의 변형 II - 촉각학"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 발기하고 마티아스 네프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 무형문화재 사업부 담당자)가 진행한 단상 토론에 수잔네 리히터 박사 (라이프치히 인쇄예술 박물관 관장), 프라니 그레노 (책 디자이너, 출판인), 에크하르트 슈마허 게블러 교수 (드레스덴 드루굴린 인쇄소 소유자), 안네테 루드비히 박사 (구텐베르크 박물관 관장)가 참석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을 다루고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구텐베르크의 도시 마인츠에서부터 구텐베르크의 유산을 보존해 인류의 중요한 문화적 업적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 "마인츠 임펄스"를 명료화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주도 마인츠, 2020년 9월 30일



---

시장



---

문화공보국장



---

구텐베르크 박물관 관장